

10월 30일(월) / 전10-12장

▶**내용요약:** 전도서 10장은 우매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지혜롭게 살 것을 권면한다. 11장은 이웃을 돌보면 자신에게 복이 됨을 알려준다. 청년기에 해야할 일들과 장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술한다.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으로 창조자를 기억하고 지혜를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가르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이니라 (12장)

▶**생각하기:**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은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10:20)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거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말씀은 마음속에서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한다. 이유는 그 저주한 말을 그들이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저주하고 있지 않은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고 축복하자!**

11월 2일(목) / 아7-8장

▶**내용요약:** 7장은 솔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확인한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녀가 지닌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이어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끝에는 사랑의 성숙을 신부가 노래한다. 8장은 두 사람의 사랑이 발전되어 인격적 결합의 단계에까지 나아감과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함을 묘사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의 불과 같으니라”(8장)

▶**생각하기:** 아가서 8장은 사랑의 힘을 묘사하기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8:7)라고 한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해보았는가?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11월 5일(주일) / 마8-10장

▶**내용요약:** 8장은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다. 나병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데 특히 백부장이 말씀만 하면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자 이를 들으신 예수님이 칭찬하신다. 이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신다. 9장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다. 세리인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

10월 31일(화) / 아1-3장

▶**내용요약:** 아가는 악기를 동반하여 즐거움을 표현하는 문학의 한 형태로 뛰어난 노래란 의미를 지닌다. 아가서는 두 연인 사이의 사랑의 기쁨을 노래한다. 이를 통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1장은 사랑하는 두 사람에 대한 소개와 사랑의 열망을 노래한다. 2장은 두 사람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만남을 고대한다. 3장은 꿈속에서 신랑을 찾는 여인의 모습과 혼인행렬을 기록한다.

▶**질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용사 중 몇 명이 솔로몬의 가마를 둘러쌌다고 하는가?(3장)

▶**생각하기:** 아가서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1:2)라며 사랑의 노래를 시작한다. 포도주보다 달콤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구절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사랑의 달콤함을 가지고 있는가? 연인과 포도주와 같은 달콤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의 전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기를!!!**

11월 3일(금) / 마1-4장

▶**내용요약:**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 첫번째 책으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해왔던 메시아임을 드러내고자 구약을 많이 인용한다.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이 기록되어 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헤롯의 음모로 인한 위기, 어린 시절의 수난을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세례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4장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지만 말씀으로 승리한다.

▶**질문:** 구약의 이사가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예언했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3장)

▶**생각하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결국 **말씀으로 그 시험들을 물리치신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 모두 마귀의 치밀한 계략이 숨어 있는 시험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신다. **하나님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어진 문제와 시험을 이겨내는 성서인들이 되기를!**

새인들이 비난하자 자신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음을 확인 해주신다. 10장은 열두제자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들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가르치신다. 세상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이를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신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을 주러 왔노라.”(10장)

11월 1일(수) / 아4-6장

▶**내용요약:** 4장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솔람미 여인을 향해 그녀가 가진 신체적 아름다움을 자세히 묘사하며 칭송한다. 5장은 신부가 신랑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꿈속에서 신랑을 찾는 모습을 기술하며 이후 신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6장은 솔람미 여인과 예루살렘 여인들의 대화를 기록하고 이어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질문:** 솔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면서 그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누구의 망대와 같다고 하는가?(4장)

▶**생각하기:**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을 향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5:2)”고 한다. 밤이 새도록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신랑의 사랑과 기다림**이 표현된다. 우리의 신랑되신 예수님도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계3:20)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자!

11월 4일(토) / 마5-7장

▶**내용요약:**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이어진다. 5장은 팔복에 대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기록한다. 원수까지 사랑할 것을 강조한다. 6장은 주기도문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 것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가르치신다. 7장은 비판하지 말 것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나온다.

▶**질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중 화평케하는 자의 복은 무엇인가?(5장)

▶**생각하기:** 예수님은 적극적인 기도생활을 가르치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7:7)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진능하시기에 알아서 주시겠지!’라는 생각들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자.** 겹새마네 기도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9:13)고 하신다. 예수님은 당시에 충분히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실 수 있었지만 당시 사회의 인식에서 가장 낮고 천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며 제자로까지 삼으셨다. 우리는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낮은 자리를 향하는 복음전도자들이 되자!**